

법 어

오늘 천수경을 비롯한 한글표준 의례문과 독송집을 부처님께 삼가 올립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와 불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한글의례를 널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사부대중은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불교의례문은 불보살님이나 역대 조사님의 가르침과 교화를 선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례문이 한문으로 전달되어 그 깊은 의미를 현시대에 소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종단은 시대에 부응하는 쇄신의 일환으로 의례의 한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이 더욱 쉽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불자들은 그 참 뜻을 보다 빠르게 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현시대에 요구를 따르는 친근한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함축적인 계송, 정제된 언어, 불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본원과 불자들의 서원이 아름다운 곡조를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개되는 현장은 바로 불보살님이 나투는 현장이요, 불보살님들을 친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자들은 보다 감명 깊고 성스러운 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수경과 예불문인 칠정례, 그리고 반야심경은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불교의례의 중요한 정수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과 천수경은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지송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천수경은 우리 불교만의 독특한 신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서원, 그리고 불자들의 참회와 기도, 수행 등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더불어 모든 악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모든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천수경 독송의 공덕이기도 합니다.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한글 천수경’을 지송하고 천수대비주 독송을 지심으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 모두는 관음보살과 다르지 않으며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보시하는 정성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그동안 우리 종단이 사회에 이루고자하는 원력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적이고 중요한 의례는 한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그리고 각종 종단의 의례 현장에서 ‘한글 천수경’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널리 독송되어 불자들의 신심이 날로 견고해지는 것은 물론 나눔과 보시라는 공감과 소통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진력을 다해주신 의례위원회와 종단 소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제자의 정성으로 올리는 오늘의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이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6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